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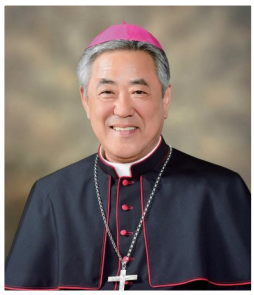


연중 제5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 별고 없으신지요. 명절 연휴를 보내기가 무섭게 중국발 우한武漢 폐렴의 급습으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위험이 하루 빨리 수습되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당 신부님들께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3월 1일 봉헌 받게 될 신축기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하나의 기준(Guideline)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러합니다. 모든 신자분들이 자기가 내는 교무금의 '1년치'(12달)를 기준으로 삼아 약정액을 봉헌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닿는 대로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당 신부님과 뜻을 모아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미 봉헌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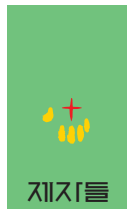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9일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배기현)

이름(소속)	금 액	이름(소속)	금 액
2018년			
김용호 신부	팔천만 원		
2019년			
진동 남자 가르멜수도회	일억 원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일백만 원
김남연, 이성숙 부부 (미국 뎀퍼스 한인성당)	일만오천 불 (17,745,000 원)	김현주(양덕동)	오십만 원
스승예수제자수녀회 벗회	오십만 원	트라피스트수녀회	오백만 원
삼계 올프레야	오십만 원	푸른군대	이천칠백만 원
늘푸른신용협동조합(손해규)	일천만 원	박미희(호계)	삼백만 원
		익명(대전)	일백만 원
2020년			
신승훈(남지)	일백만 원	최용범(남해)	일백만 원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오백만 원	익명(중동)	일백만 원
이갑순(칠암동)	일억오천만 원	김황성(대방동)	일억 원
합	계	오억 사백이십사만 오천 원	



천주교 마산교구 일반병원 사목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마산교구는 '일반병원 사목'을 따로 정하여 201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사목'은 가톨릭 내의 교구나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일반병원 원목담당인 저와 수도자 1명(성 빈센트 드폴 자비의 수녀회 소속)이 각 병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병원은 마산과 창원지역 내 4개 병원, 곧 창원파티마병원을 제외한 비가톨릭계 병원인 창원경상대학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삼성창원병원, 마산의료원입니다.

병원봉사자들은 병원과 가까운 성당의 신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원경상대학병원은 창원 대방동성당과 가음동성당 신자들, 창원병원은 사파동성당과 가음동성당 신자들, 삼성창원병원은 구암동성당 신자들, 마산의료원은 완월동성당과 그 외 근처 성당 신자들이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원목실은 삼성창원병원은 제외한 창원경상대학병원(본관 지하2층), 창원병원(본관 지하1층), 마산의료원(본관 지하1층)에 있습니다.

일반병원 사목의 주된 일은 해당 병원들의 병실에 있는 환자방문입니다. 가톨릭신자를 특정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자를 방문합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병실을 다니면서 '가톨릭에서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친절한 방문을 통해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문을 통해 비신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전하고, 냉담신자들을 회도하며, 신자들에게는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외에도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시간은 창원경상대학병원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본관 지하2층 원목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본관 지하1층 원목실), 삼성창원병원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본관 지하6층 대회의실), 마산의료원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본관 지하층 대강의실)입니다. 그리고 매주 미사 후에는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 환자들에게 봉성체를 해드리고, 환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과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당과 관련하여서는 만일에 세레나 병자성사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있으면 우선은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위급 여부를 따져보고 상황에 따라 환자 해당 성당 사제와 의논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판공기간의 고해성사도 환자 입원 시일을 확인하고 본당에 판공여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사목을 하려면 병원봉사자 교육이 중요하여 2019년에 처음으로 병원봉사자교육을 3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환자방문 시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병원봉사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3월에는 ‘병원봉사자의 소명과 역할’, 6월에는 ‘환자와의 대화 기법’, 9월에는 ‘질병균의 특징에 따른 돌봄’과 ‘환자를 위한 전례로 세례성사와 병자성사에 관한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3차 교육을 받은 병원봉사자들(23명)에게 수료증을 증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원봉사에 관계되는 내용(위생관리, 감염관리, 상담기법, 각 질병의 이해, 영성생활 등)으로 교육을 계속하여 병원봉사자의 자질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2019년 10월 27일(주일) 처음으로 일반병원 봉사자들과 병원봉사에 관심 있는 신자들(담당신부와 수녀 포함41명)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마무리”라는 주제로 성지순례 첫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첫 일정으로 부산교구 살티공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 있는 김영제 베드로, 김 아가다 순교자 묘에서 야외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 십자가의 길을 다함께 바친 다음 언양성당으로 이동하여 언양성당 역사와 살티공소, 죽림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김해 낙동강 레일바이크와 와인동굴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가 본당과 병원은 다르지만 천주교 마산교구 안에서 일반병원 원목봉사자로 함께 봉사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면 삶의 자리에서 행복게 살아야 된다는 기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딛었던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병원사목을 하는 모든 이들이, 아픈 이들을 향한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손길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도행전 읽기 3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령 강림 사건(2:1-12)

경건한 유다인은 일 년에 세 번 예루살렘을 순례해야 하는데, 오순절은 과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삼대 순례 축제에 해당합니다. 이 축제는 오유월절 봄 수확을 경축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스카, 곧 과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믿었기에 오순절을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순절이 되면 추수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런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목격한 이들은 디아스포라로 인해 온 세상에 퍼져 살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독실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입은 제자들의 말을 각기 자기 지방 말로 들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온 세상 말이 갈라져 더 이상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던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려 줍니다.(창세 11:1-9)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그들의 말을 섞으신 뒤 온 땅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성령으로 인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2:14-36)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뒤 베드로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설파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3:1-5에서 계시된 바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핵심이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였으며 승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얻어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는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생활(2:37-47)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꿰뚫리듯 아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성령에 대한 약속은 그 자리에 있는 이들과 그들의 자손들,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 가운데 3천명가량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2,42-47은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네 가지 삶의 모습으로 전해 줍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루카는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고 전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3,41. 47; 4,4; 6,1. 7; 9,31; 12,24; 13,49 등)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루카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 있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일은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의 활동(3,1-5,16)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 주요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풁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카 9,37-43에서는 아무런 치유를 하지도 못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병자를 고치게 된 것이다. 기적을 행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구약성경을 들어 설교합니다.(3,12-26)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며 자신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밝힙니다. 아울러 진정 치유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증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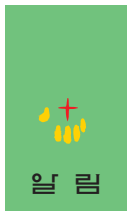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바를 이어가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가이들이 제자들을 찾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께 행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제자들에게도 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장정만도 오천명 가량 되었다고 전합니다.(4,4) 이렇게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제자들은 무식하고 평범한 이들이었지만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유다 지도자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풀어 줄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는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시편 2,1-2)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4,23-31)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금 공동체 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루카는 공동체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4,32-5,11) 각자는 소유하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어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말이 곧 닥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두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눈 듯합니다.

이 대목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지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인물은 나중에 박해자였다가 회심한 바오로를 알아보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르나바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니아스와 사피라는 인물들은 성령을 속이고 공동체에 귀속될 재산을 탐하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동체는 하느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교회(5,11)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에 대한 박해(5,17-42)

제자들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모여듭니다. 이에 질투심을 느낀 대사제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다시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나서서 제자들을 그냥 놓아두자고 조언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하느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움직임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가말리엘의 조언에 따라 유다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짐으로써 진정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임이 드러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오로의 스승입니다.



▶ **교구/본당**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2월 10일(월)~11일(화)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재무평의회

일시: 2월 11일(화) 10:00
장소: 교구청
문의: 관리국 055·249·7031

지부장 본당 방문

2월 12일(수): 남성동, 상남동, 사림동, 명서동
2월 13일(목): 월남동, 진동
2월 14일(금): 의령, 칠원

45차 창세기 연수

일시: 2월 13일(목)~16일(주일) 3박4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신학생 신학교 입학

일시: 2월 12일(수)-신입
2월 17일(월)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문의: 성소국 055·249·7061

교리교사 동계피정

일시: 2월 15일(토)~16일(주일)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2~3

제447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2월 16일(주일) 13:00
장소: 교육관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제17차 약혼자 주말

일시: 2월 21일(금)~23일(주일) 2박3일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소년 성교육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일시: 심화교육 2월 29일(토) 09:30~18:00
장소: 교구청 4층 회의실
문의: 가정사목부 055·249·7028

청년성서 공부 그룹 모집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위원회/기관/단체**

2월 사회교리 (미사와 특강)

일시: 2월 10일(월) 19: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주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원인과 해법
강사: 이재봉 교수(원광대)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월 기도모임

일시: 2월 17일(월)
성체조배 11:00, 13:00
미사 및 강의 13:40(이창준 신부)
장소: 장평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문의: 010·3903·8234

마리아사제운동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일시: 2월 17일(월) 13:00~15:00
장소: 사파동성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맛있는 복지관 식당(조리 및 배식)
청소년 방과후 교실
자기결정 및 옹호프로그램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신부님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감: 2월 9(주일) 15:00(방문, 우편, e-mail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문의: 055·221·1891~2(cecomasan@gmail.com)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매(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매(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매(토)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매(주일) 18:00/ 명서동성당
진주: 매(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매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매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매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매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매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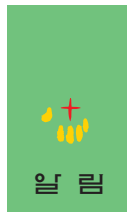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교육, 실천교리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 **기 타**

서울 삼성산성지 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시: 2월 14일(금) 18:00~16일(주일) 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강경채 신부, 양창우 신부 등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마산역 김안과 앞 (10:30 출발)
문의: 010·7375·4600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3월 28일 349 만원 9일 349 만원 11일 419 만원 13일 410 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	--	---	---



2020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과정

원서접수(추가): 2월 28일(금)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2020년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꿈나무' 여름 캠프

일정: 8월 10일(월)~12일(수)

장소: 삼정부여유스타운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150명

참가비: 8만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에서 4만원 지원)

문의: 02·2268·7103, www.pmsk.net

함안 안나의 집 입소 안내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1~4시설 등급자

주소: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 (대산성당 내)

문의: 055·582·0252, 010·2674·6174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와 함께하는
2020년 사순시기 묵상집 발행

구성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요 부분

- 성덕을 실천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격: 1,500원

신청마감: 2월 9일(주일)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칠원성당 제1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박이호(바오로)

부회장(남): 주원식(베드로)

부회장(여): 주상미(율리아)

총무: 박갑춘(대건안드레아)

교육분과장: 정옥희(로사리아)

구역분과장: 안분이(첼마)

사회복지분과장: 양선아(유리안나)

선교분과장: 노인숙(데레사)

시설환경분과장: 이일환(요한)

전례분과장: 방순옥(마리아)

재정분과장: 안석중(요셉)

청소년분과장: 이현석(토마스)

홍보분과장: 김은정(가타리나)

월남동성당 제2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이학동(스테파노)

부회장(남): 김준규(F.하비에르)

부회장(여): 최정이(데레사)

총무: 남영옥(프란치스코)

재경분과위원장: 김준규(F.하비에르)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숙경(제노베파)

전례분과위원장: 노혜경(하아친타)

사회교육분과위원장: 이란(제노베파)

구역분과위원장: 이동숙(헬레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진외순(데레사)

미디어분과위원장: 장정희(나탈리아)

청소년분과위원장: 유미향(요셉피나)

성경분과위원장: 변기순(아네스)

봉사분과위원장: 최원태(토마스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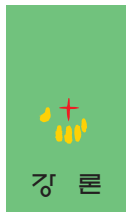
시설분과위원장: 박을규(레오)

여성분과위원장: 윤희숙(마리아)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10일(월) 19:00	월남동성당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		010·5072·5612
창원지구	2월 10일(월) 19:00	반송성당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	이해봉(토마스, 서울교구)	안찬모 신부(이나시오, 삼위일체)	010·9421·3377
진해지구	2월 10일(월) 19:00	중앙성당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장훈철 신부(바오로, 부산교구)		010·7566·9441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 15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있는 젊은이

 라파엘 여행사 ◆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4/20,5/6(299만원) ◆ 이탈리아 9일 3/12(27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99만원) ◆ 다낭성모님발현 5일 3/30(29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가톨릭신문 투어 ▶ 3/9 발칸반도(예주교리에) 12일 355만원 ▶ 3/12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3/15 서부지중해 크루즈 10일 399만원 ▶ 3/17 타기그리스 13일 389만원 ▶ 3/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	--	--	--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착한 행실이라면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국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자들은 하느님과 관계를 개인의 영성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말씀을 찾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피정도 찾아다니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관계를 충실히 하는 것을 또 교회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 있게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이런 신자들도 보기가 힘들어서 이 정도만 해 주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과 교회생활 안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나 자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이 세상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경철 루도비코 신부 | 남성동주임



제 1 독 서	이사 58,7-10
화 답 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제 2 독 서	1코린 2,1-5
복 음	마태 5,13-16

주일 진례